월/요/광/장

김선정

6人 공동감독의 라운드 테이블

오래만에 서울에서 느긋하게 전시회 오프닝에도 가고, 작가들과 저녁 자리도 같이 하게 됐다.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계 지인들과 광주 비엔날레 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공동 감독제를 제안했는지, 6명의 공동 감독제로 일하는 게 어땠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아마도 이번이 처음 실시하는 공동 감독제여서 전시보다는 전시를 만드는 과정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작년 4월쯤에 공동 감독제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의견 조절이나 전시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일본 모리 미술관의 마미 카타오카가 2012년 광주 비엔날레를 함께 준비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공동 감독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마미 감독과는 이전에 3~4회 전시를 함께 했던 경험이 있다. 2002년 일본에서, 2007년 중국에서 일본 국제 교류재단의 초청 큐레이터로 같이 일을 했었고, 2009년에는 기무사에서 열린 플래폼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일본과 중국의 전시는 공동 큐레이팅 방식으로, 필자와 마미 감독, 그리고 다른 큐레이터들이 참여한 전시였다. 다수의 큐레이터가 참여한 전시들은 언제나 의견이 분분하고 하나의 전시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공동 큐레이팅을 하면서 배운 점들도 많아 2012 광주비엔날레의 공동 예술감독을 맡기로 결정했다.

공동 감독들은 작년 5월부터 두달에 한번씩 광주와 서울, 그리고 베니스, 도하, 두바이, 런던 등에서 전시에 관한 회의와 홍보를 진행했다. 한번은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했는데 카타르 미술관 관장으로 일을 했던 와산 감독이 비자 문제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할 수 없어서였다.

미팅은 언제나 많은 안건과 토론으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종일 진행됐다. 어느 도시에서 미팅을 하던 시간에 쫓겨 그 도시를 구경하거나 회의실을 나갈 시간을 갖지 못했다. 공동 감독으로 일을 시작하고 10개월간 우리는 공동의 관심을 주제로 전시를 만들기 위해 각기 준비한 주제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벌였다.

지리적으로 아시아 지역 출신이지만 그동안 얼마나 다른 배경과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되었고, 이런 '다름'을 반영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전시 주제겸 타이틀이 되었다.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들이 만나 변화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라운드 테이블'을 선택한 것이다.

'라운드 테이블'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견을 나누는 정치 회담을 연상시키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전통 밥상인 두리반이 연상된다. 라운드 테이블의 한국어 제목으로 원탁회의나 두리반 등을 생각했고 라운드 테이블과는 의미상에 다른 뜻이 있어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6명의 감독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민주적으로 리더가 없는 구성체를 만들려는 노력이다. 한 사람이 다른 5명을 대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되도록 함께 하려 했고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전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공간에서 감독들의 작가가 섞여 있는 전시장도 있지만 감독들 중 자기만의 공간을 원한 감독을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열린 방식으로 한 방식을 고집한다기 보다는 다른 방식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점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에서 공동 감독들이 중요하게 공통으로 생각했던 점은 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생산의 문제이다. 전시를 위한 새로운 작업의 생산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산을 같이 하려는 노력이다. 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워크 스테이션이라고 이름 붙여진 컨퍼런스와 이저널 등을 통해 담론을 강화했다.

작가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새로운 작업의 커미션 과정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또한 공동 감독들간에도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수평적 교환을 하는 방식을 고수했다. 지난 7, 8회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외국 감독들인데다 기존의 있는 작업들을 초대하는 전시 방식이었기에 광주에 작가들이 와서 새로운 작업을 하도록 다른 방향의 전시를 생각했던 것이다.

큐레이터가 전시를 만들 때는 언제나 기존에 다른 큐레이터가 했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 다른 전시를 꿈꾸기 때문이다.

〈2012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광주·전남 총선 선거사범 전국 최고라니

4·11 총선과 관련한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이 190명으로 전국 최고라고 한다. 민주·인권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190명에 이르며, 이 중 구속기소 19명, 불구속기소 114명, 52명은 불기소하고,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295명이 입건돼 100명이 구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 입건자 비율은 8.27%, 구속자 비율은 무려 1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불명예는 선거 관련 최대 사건으로 평가되는 광주 동구 불법선거 탓이 크다. 구속 12명, 불구속 기소 17명 등 피고인만 29명에 달하고 박주선 의원을 비롯 서민들까지 연루돼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19대 총선에선 과거와는 달리 구청장들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유태명 동구청장이 민주당 내 박주선 의원의 후보경선 과정에 개입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민형배 광산구청장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해 지난 19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단체장의 선거 개입은 특정후보 지지를 통해 2년 후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의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돼왔던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론과 맥을 같이 한다.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부작용이 더 많았다. 공천을 받으려고 중앙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가 적발되는 등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치권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선거 개입 등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활착되고 지역 정치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외지 관광객 외면하는 광주 관광안내소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외국인과 외지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고 있으나 정작 이들은 허술한 관광안내 인프라에 불만이 많다고 한다. 관광안내소가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안내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광주역 등 모두 5곳으로 광주역, 광주공항, 광천동버스터미널, 송정역 등 4곳은 광주시관광협회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의 거리는 한국여행업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안내소를 이용한 외지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예술의 거리 관광안내소는 통행이 거의 없는 한 쪽에 치우쳐 있어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명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안내소도 컨테이너 박스 채 운영하고 있고, 시내 어느 곳에도 이곳에 대한 안내판을 찾아 볼 수 없다.

이뿐 만이 아니다. 광주의 중심가인 충장로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상무지구에도 광주와 광주 인근의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홍보할 안내소는 전무하다. 이로 인해 외국인들과 외지인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외여행을 즐겨다니는 외국인 부부가 광주도 의례 관광안내소가 있을 줄 알고 도심을 찾았다가 관광정보를 얻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관광객이 현재 운영 중인 관광안내소를 찾았다가 부실한 자료에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광주공항과 터미널·역의 관광안내소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안내소별로 하루 평균 200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주말과 광주비엔날레 행사기간에는 4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관광은 지역의 볼거리, 먹을거리에 전통과 역사를 알리고 관광수익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산업이다. 이를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선 관광안내 인프라 확충과 함께 전문가를 영입, 관광정책을 재수립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뜻깊었던 소년범과의 가을 조우

허지훈

태풍이 2번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한 후 아침, 저녁 공기가 폐부를 날카롭게 찌를 만큼 쌀쌀해졌다. 필자는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가 만연해지는 초가을이 되면 유달리 긴장을 하게 되고, 그동안의 필자 생활을 뒤돌아 보게 된다. 아마도 초가을은 필자에게 지난 1년간의 결실을 되돌아보는 수확의 시절인 것 같다.

지난 2월 광주지검에 부임해 온 후 현재까지 소년전담을 맡아 여러 소년사범들에 대한 사건을 전임지에 비해 많이 처리했었다. 오늘도 몇 명의 소년들이 필자 앞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래서인지 초가을인 요즘은 다른 것보다는 필자가 과거에 처리했던 소년들이 자주 생각난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방화를 저질러 구속 송치된 소년이 있었다. 솔직히 지금은 그 소년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그 소년에게 어떤 태도로 조사에 임했는지,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형사범들처럼 그 소년을 구속기소했고, 그 다음엔 그 소년은 내 기억속에서 사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을 하면서 중국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배달원이 음식을 내려놓고 음식대금을 건네받은 후에도 쭈뼛쭈뼛 서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무슨 사유인가 물었더니 필자한테 조사받았던 그 구속기소된 소년이었다.

그 소년은 "당시 검사님께서 저한테 건네주셨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 때문에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반성 많이 했고, 지금은 배달일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사님한테 조사받으러 오지 않을 겁니다.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라고 수줍게 말하면서 돌아갔고, 필자는 그날 하루종일 왠지 모를 뿌듯한 마음에 들떠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로 광주·전남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그때 장학사들이 필자에게 "소년들을 처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훈육의 대상, 관심의 대상으로 봐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것도 생각난다. 다시 초가을이 되자 앞에서 말한 일화들과 함께 광주지검에서 조사했던 소년들이 많이 생각난다.

하루에도 몇 명씩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솔직히 나한테 조사를 받으러 왔던 소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었는지,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사건처리 대상으로만 생각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특별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조언 등을 잘 해주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인지 올해의 결실은 많이 아쉽기만 하다.

유독 시를 읽고 감상하기 싫어하는 필자가 유달리 좋아하는 시의 문구가 있다. 중국 남북조 송나라 시대의 도연명 시인이 지은 귀거래사(歸去來辭)인데 이 시 내용을 보면 "이미 지난 일은 탓해야 소용 없음을 깨달았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탓해야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바른 길을 쫓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의 문구가 있다.

이 칼럼을 쓰기 며칠 전부터 위 귀거래사의 문구처럼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검사실에 오는 소년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보았다. 범행은 왜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할 계획인지,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특기와 취미가 무엇인지 등 사건에 대한 질문 이외에 소년들의 신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묻는 필자에게 소년들이 보내는 첫 반응은 낯설음이지만 검사실을 떠날 때 보여주는 마지막 표정은 친동생이 형님에게 보내는 미소로 착각할 정도의 환한 미소를 보여준다. 그럴 때면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

필자의 이와 같은 작은 관심과 배려가 당장 소년들을 교화하고,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또 소년에 대한 교화 및 선도가 필자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필자의 작은 관심으로 소년들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갖고 앞으로 희망을 가진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도 그 소년들이 자신들에게 작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준다면 그것만으로도 필자는 만족한다.

내년 이맘때에는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날씨는 쌀쌀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대풍년의 시기가 되길 마음 한구석에서 조심스레 기대하면서 오늘도 만날 소년들이 기다려진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 검사〉

기고

주민과 행정이 하나되는 도시재생을 위해

안용훈

지금까지 대다수 사람들은 주택이 노후하거나 상가가 침체한 경우 의견을 모아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재개발·재건축이야말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방식은 주민 의견수렴이나 토지보상 등 장기간의 개발과정과 사업성이 열악한 지방도시의 경우는 사업자 참여가 저조해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도시의 탄생과 구도심의 쇠퇴는 현재 진행형이다. 화려한 신도시의 탄생으로 상주인구 감소, 도시 기능의 쇠퇴, 행정기관의 이전 등 도심 공동화에 직면한 구도심은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구도심의 예견된 쇠퇴를 치유하고 위해 광주시는 과거의 물리적인 방식에서 탈피, 구도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행정의 방향 또한 구도심과 신도시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유도하는 '도시재생'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한 도시가 겪고 있는 쇠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능동적 처방이자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인 문제 해결 접근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이 같은 도시재생은 세계화에 따른 중소도시의 침체와 이웃 공동체의 약화로 우리 세대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했고, 시장중심주의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세계적 흐름은 국가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민관 협력이나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시하는 추세다.

따라서 광주시 역시 지역주민,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도시설계 전문가, 교수 등 민간 부문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도시재생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식의 폭을 다양한 방식으로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처음 시도한 제1회 워크숍에서는 '광주시 도시 및 주택정비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구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정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민·관·전문가들이 네트워크(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협력과 참여를 주축으로 하는 '상향식 도시재생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2회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에서는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의 계획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창원시, 인천시 등 다른 도시의 재생사업을 살피는 등 다음달까지 5차례에 걸쳐 워크숍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시민들은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연계와 상권 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도시정체성 확립과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직접 피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광주시는 민관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과 재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더불어 관련 조례 제정, 서민층 대상 임대주택 확보 등 제도적 측면에서 기틀을 다지고 있다. 또 마을 단위 재생사업인 창조마을 만들기, 희망마을 만들기 등 가까운 이웃 마을재생 사업 등을 연계해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구도심의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의무적으로 건립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전체 세대수의 8.5%)을 일괄 매입해 사회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 도시주거공간 정비활성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올해 4월 1일 제정 시행한바 있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서도 '도시재생법'을 제정하려하고 있다.

둘째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765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135억원을 더해 900억원으로 주택 1200호를 공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구역 내 원주민 재정착을 돕는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셋째 근린형 재생사업이자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영세민 밀집지역 내 거점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생활공간개선, 복지 및 수익사업 등 복합적인 마을복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지난해부터 지역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대표적인 마을재생 사업으로 시작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주거·문화·복지·일자리가 어우러지는 통합적 마을 단위 재생사업으로 5개 자치구별로 시범마을을 1개소씩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

광주시는 민·관·학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워크숍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법령의 제정 등 제도를 기반으로 주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소통행정, 거버넌스 행정의 대표적 사례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희망마을,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등 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윈윈 효과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렇듯 주민과 행정이 하나 되고 이론과 실제가 소통(참여)하는 도시재생이야말로 광주시가 꿈꾸며 만들어 가고자하는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광주시 도시재생과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이념 유전자

올해 대선은 진보와 보수가 총력 대결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보수대연합을 꾀하고, 범야권은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가 지상과제다.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남북문제를 제외한 정책의 차별성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선거전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진보와 보수의 응집력과 대립각은 커질 전망이다.

유권자들도 연령대나 직업, 지역에 따라 성향이 갈린다. 20~30대는 진보 성향이 두드러지고 50~60대는 보수 색채가 진하다. 여론조사에선 30%가량이 '진보', 또 다른 30%는 '보수', 나머지 30~40%는 '중도'라고 답한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 종래에는 성장 환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과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은 유전인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정치적 이념은 주로 DRD4라 불리는 도파민(dopamine) 수용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도파민은 행복감이나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알려져 있다.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도파민 분비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팀은 사춘기 청소년 2000명의 DNA 자료를 집중 분석해 DRD4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면 진보적인 성향을 띄게 된다고 밝혔다. DRD4의 영향으로 도파민을 더 많이 흡수하면 진보적 성향을 띠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수적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번 좌파면 영원한 좌파'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춘기 시절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경우 나중에 대부분 좌파로 굳어지게 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여야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은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안기 위해 총력전을 펼 태세다. 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는 DNA 재조합이나 유전자 조작으로 정치적 성향을 바꾸려할지도 모르겠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